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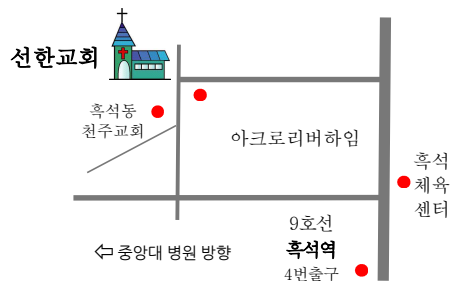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박 회 태, 유 신 웅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장 로	윤 호 중 (집사장)	관 리 장 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이금춘, 김인실
편 도 선	조 계 승, 이 태 수		조나단, 강야엘
			손석규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 천 사 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14)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6장 (통일찬송가 14장)	
교 독 문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찬 양 과 경 배	320장 (통일찬송가 350장)	
기 도	윤 호 중 장로	박 지 윤 청년
특 송	신 영 문 집사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7절	마태복음 5장 6절
설 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임춘배 목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내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시18:20-30)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예 배 안 내

1.8월 첫주일(7일)부터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2.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3.다음주 점심식사는 요셉회에서 준비합니다.
4.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침 레 식

8월7일 주일 11시 예배후. 침례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3. 개인경건훈련안내

*성경 1독하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2.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3.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4.선한교회의 각 부서들의 부흥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7월 부서별 행사

운영위원회	8/15일 (월)	마리아회	8/6 (토)
청소년부	7/29~31 (금~주일)	루디아/여호수아	8/28 (주일)
청년부	8/14~8/15(주일~월)	드보라회	7/31 (주일)
		바울회	8/6 (토)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	--

찬송 :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491장(통 478)

본문 :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 어떤 분이 제게 구약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구약에는 천국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은 오로지 이 세상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고, 죽음과 병은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현세에서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처음으로 선포한 이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첫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 4:17)고 외쳤고, 천국 비유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서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노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본래 힘을 쓴다, 강제로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침노한다고 하면 군대가 견고한 성을 공격하듯이 천국을 공격하고 침략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집중공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부정적인 개념을 긍정적으로 쓰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도적' 같이 오신다는 말씀이나 세간살이를 터는 강도의 비유(마 12:29)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침략한다는 말은 애쓰다, 힘쓰다, 열심을 낸다 같은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천국이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구절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세리나 창기, 죄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힘쓰다면' 천국은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둔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고전 15:19) 천국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산상보훈의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마 5:3)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마 5:10)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제 목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살후2:13-17)
서 론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소명(부르심)에 합당한 삶 (1) 성도의 삼중적 정체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다(13,14절) (2) 성도를 부르신 목적: ①‘구원을 받게 하는 것’(13절), ②‘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14절) (3)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15절) 2. 교훈 (1) 성도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2)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3)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결 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매일 Q.T.		질서와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날짜 : 8월 1일
찬양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본문	창세기 1:1~13		
말씀요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위 물로 나누시며,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을 한 데 모아 물을 땅,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각종 식물을 내게 하십니다.		
묵상질문 1	창조 질서 1:1~5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질서와 생명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묵상질문 2	경계 설정 1:6~13 창조 기사에 담긴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어떠한가요? 나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나요?		
한절묵상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창조의 말씀을 통해 기분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못 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합2:18~19)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말씀하시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요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또한 그분은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시94:9). 각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고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저와 다음 대에게 굳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만 가득했던 제 삶에 참 빛을 비춰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엄위하신 말씀에 순종해 질서 있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창조주 하나님”
찬양과 기도	기뻐하며 경배하세 (새 64)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어느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 다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시비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며? 하나님이 무슨 소금쟁이도 아니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딛고, 또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딛고 그렇게 물 위를 걸었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건 사람이고,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깃 물 위를 걷는 게 대수였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라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분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역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 나누기	창세기 1:1~13	
묵상포인트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18:14)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창조 현장에 나타났던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장면조차 하나님을 전부 담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힘이에요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 줍니다. 성경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 누구라고 선언하나요?(1절)	
적용하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절)라는 구절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를 만나 두렵고 위축될 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제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	날짜 : 8월 5일
찬양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본문	창세기 2:18~25		
말씀요약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신 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상질문 1	사람과 동물 2:18~19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 이름을 짓는 역할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마음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동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공동체를 창조하심 2:20~25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 어떤 뜻인가요? 나의 가정은 건강하고도 평등한, 하나님의 공동체인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2장 18, 24절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부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이고, 서로에게 정절의 의무와 신뢰의 책임을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서로 다른 정서와 환경 속에 살아온 부부의 연합은 쉽지 않기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와 자격을 갖춘 부부는 드뭅니다. 미완의 과정을 거쳐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담겨야 할 가치는 부부의 연합과 신뢰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뜻을 새겨 봅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신 배우자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이 상할 때도 서로를 향한 감사와 섬김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평생 주님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만물에 드러나는 창조주의 숨결과 능력	날짜 : 8월 2일
찬양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본문	창세기 1:14~23		
말씀요약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체를 궁창에 두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 물과 궁창에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 명하십니다.		
목상질문 1	가시적 피조물과 비가시적 피조물 1:14~19 ‘해, 달, 별’ 창조와 더불어 생겨난 것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비가시적 창조 세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 창조 능력 1:20~23 ‘큰 바다짐승’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내가 담대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1장 18,21절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행동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동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좋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조화, 질서, 균형’을 뜻합니다. 창조된 우주가 정교하고 치밀한 질서를 갖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닌 능력의 광대함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내면세계는 조화와 질서와 균형을 이룹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신실하게 붙드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놀라운 작품 속을 거닐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며, 오직 창조주를 높이 찬양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 형상을 사는 길, 회복을 위한 멈춤	날짜 : 8월 3일
찬양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본문	창세기 1:24~2:3		
말씀요약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땅에게 명해 그 종류대로 생물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며 온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명하십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묵상질문 1	사람 창조 1:24~31 하나님은 사람(남자와 여자)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나요? 하나님 형상임을 기억하고 내가 존중하며 대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묵상질문 2	안식 2:1~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멈춤'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나요?		
한절묵상	창세기 1장 27~28절 성경은 인간 창조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진술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닮은 꼴'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책무'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위탁받은 인간은 벅찬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간과할 때, 권력은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사람을 능력과 외모, 배경으로 가름하고 판단했던 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안식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을 이어 가게 하소서.		

매일 Q.T.		창조 세계를 섬기는 사람,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날짜 : 8월 4일
찬양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본문	창세기 2:4~17		
말씀요약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 사람을 거기에 두시는데,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묵상질문 1	사람과 노동 2:4~14 성경은 노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노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나는 다음 세대에게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묵상질문 2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2:15~17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특권은 무엇인가요? 태로부터 사람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돌보시나요?		
한절묵상	창세기 2장 9, 17절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업을 감아 놓으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계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동산 가운데에 두신 것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시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강요된 순종'보다 인격적 결단에 따른 '자발적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막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제게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지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